

2024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 후서

메시지 3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을 나르는 이들

성경 말씀: 고후 2:12-15, 5:20

I.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을 나르는 이들이다—고후 2:12-15.

- A.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인 우리는 동시에 또한 향을 나르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각처에 나타내신다(14 절). 사실상 그리스도의 향을 날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빌 1:19-21 상).
- B.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굴복되고 점유되고 얻어진 바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적시시어 그분의 향기가 되게 할 자유가 있으시다(고후 2:15).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의 참된 승리는 오직 우리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패배시키시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포로들이 되어야 한다(고후 12-15, 비교 10:5).
- C. 아가서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내밀한 동산이 된다—아 4:12, 15.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밀한 동산이므로 그분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심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누리시기 위해서이다—아 1:12-14, 4:12-14, 5:1.
    - a. 추구하는 이가 그분의 동산에 오시기를 주님께 구하자마자 주님은 반응하신다.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이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동산인 우리 안으로 오신다—아 4:16 하, 5:1.
    - b. 체험있는 믿는 이는 나중 헌신이 처음 헌신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자주 깨닫는다. 그러나 나중 헌신이 처음 헌신보다 더 영광스러우며, 이러한 헌신만이 주님의 수고의 열매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창 2:7,8 레 6:12-13.
  2. 그리스도의 내밀한 동산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이는 이렇게 기도한다.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아 4:16 상.
    - a. 북풍(차갑고, 가혹하고, 혹독한)과 남풍(따뜻하고, 부드럽고, 신선하게 하는)은 주님께서 믿는 이가 주님을 그들의 충족의 비결로 누리도록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다른 환경이다—빌 4:11-13, 6-7, 1:20.
    - b.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한 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c.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도록 준비된다. 속에 향기가 있다면, 바깥 상황들은 단지 향기를 발하도록 도울 뿐이다—빌 4:11-12.
- D.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나가게 하신 개선 행진이었다. 바울은 이 개선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다—고후 2:14.

1.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이며,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였다—고후 2:15.
2. “헬라어 용법에 따르면, 여기서 ‘향기’와 ‘지식’은 동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의 일을 통하여 그 본성과 효능을 전달하는 향기로 상징된다”(빈센트). —고후 2:14, 각주 4.
3.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후 2:16-17, 13:3.
- E.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을 나르는 이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고후 5:20.
  1.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따라 산다—고후 5:4.
  2.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는다—고후 5:9.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고후 5:14.
  4.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에 따라 다른이들을 안다—고후 5:16, 아 7:4.

**II.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였다(레 1:9).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만족시키는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되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온다—민 28:2, 비교 고후 2:14-15.**

- A. 번제물(레 1:1-17)은 그리스도를 다음의 두 방식으로 예표한다. (1) 온전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삶을 사셨음(레 1:3-4 상, 9,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그리고 (2)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심(엡 5:2, 고후 5:14-15, 갈 2:19-20, 엡 4:20-21).
- B.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생활의 반복이다. 이것은 번제물로서의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다—레 1:9, 요 8:29, 고후 5:9, 엡 4:20-21.
- C.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은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는 강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레 8:18). 이 제물, 곧 헌신의 숫양(레 8:22, 7:37 과 각주 1)은 섬기는 이들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 봉사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레 6:12, 비교 히 10:5-10).
- D.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곧 연결을 상징한다.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된다—레 1:4 하.
- E. 그렇게 연결될 때, 우리의 약함과 결함과 잘못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전 6:17, 고후 5:21, 갈 2:20 상.
- F.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생명 주시는 영, 곧 우리가 안수한 그 그리스도(고전 15:45, 고후 3:6, 17)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삶, 즉 번제물의 삶의 반복인 삶을 사시기 위해, 즉시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일하신다(갈 6:17).
- G.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함으로써(민 28:3-4, 레 1:2-4, 6:12-13, 비교 딤후 1:6),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번제물로서의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고후 5:14-15, 빌 1:19-21, 행 27:22-25, 28:3-9, 고전 1:9).

**III. 몸의 생활, 곧 활력 그룹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랑하는 기능은 마리아로 대표되는데, 마리아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위에 쏟아부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붓자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요 12:2-3, 막 14:3, 비교 아 1:12.**

- A.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평가는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집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좋은 사랑을 주님께 기름으로 붓고 사랑의 향기를 발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방면과 특징이다.
- B. 요한복음 12 장 1 절부터 11 절까지에 있는 교회 생활은 주 예수님께 부어진 귀하고 달콤하고 유쾌한 기름의 향기로 가득한 집과 같다.
- C.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사랑을 허비라고 여겼다. 그러나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전히 사랑스러우시며 귀한 것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마 26:8-13, 요 12:4-6.
- D. 지난 수 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주님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 E. 옥합은 속사람이 뚫고 나오기 위해 깨어져야 할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한다. 주님은 질그릇, 즉 우리의 겉 껍질인 옥합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후 4:7, 요 12:3, 24.
- F.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허무시기 위한 환경을 안배하셔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롬 8:28). 여기에서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을 말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주입되시고,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결국 그분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어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롬 8:29).
- G.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파쇄하고 성령으로 성숙하고 달콤하게 조성되게 한다.
  - 1. 좋은 나쁜든,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출생에 따른 우리의 존재는 다 타고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넣어 조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장애가 된다.
  - 2. 그러므로 우리의 타고난 힘과 타고난 지혜와 타고난 영리함과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결함과 타고난 미덕과 타고난 속성과, 이에 더해 우리의 성격과 습관은 모두 허물어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기질과 새 성격과 새 습관과 새 미덕과 새 속성을 만드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3. 이 재조성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빛 비추시고,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적시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상황에 모든 상세한 것과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안배하셔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롬 8:28).

IV. 우리는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한가지 목적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되기까지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기 바란다. 이것이 귀한 것이며, 주님의 종들의 길이다. (다음 쪽의 주요 인용문들을 볼 것)

### 그 영의 해방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겉 사람이 파쇄되는 것에 대한 교통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의 임재가 죄인들과 믿는이들과 세상 가운데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 안에 배고픔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의 임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알 수 없는 신성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말함에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다른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안에 강렬한 배고픔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윗치만 니 전집, 제 2 집, 22 권, 제 31 장, 18 쪽, 19 쪽

열왕기하 4 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서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왕상 4:8,9).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메시지를 전한 적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 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었다. 그 여인은 그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파쇄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받는 인상은 다름 아닌 겉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불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총명하거나 구변이 극히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교회도 우리의 소위 좋은 인상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영의 인상이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안에 있는 가장 강한 부분들이다. —윗치만 니 전집, 제 3 집, 제 7 권, 제 8 장, 250 쪽, 251 쪽